

미국을 위한 미국의 추악한 전쟁

이철기(동국대 교수 국제관계학,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평화의 세기가 되기를 갈망했던 21세기도 결국 야만과 제국주의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한 국가의 야망과 그 지도자의 그릇된 가치관이 인류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어이 이라크침공을 감행했다.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는 이라크침공은 유엔헌장 위반이고 명백한 침략행위이다. 부시 대통령이 힘없는 국가의 지도자였다면,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힘을 앞세운 일방주의의 결정판

미국이 내세운 이라크 침략의 주요한 명분은 대량 파괴무기 개발과 알카에다와의 연계설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구실에 불과하다. 이번 이라크 침략은 부시행정부가 추진해 온 힘을 앞세운 일방주의 정책의 결정판이다. 반테러리즘과 대량 파괴무기의 확산 방지는 냉전의 종식으로 퇴색해 버린 '반공주의'를 대신해, 미국의 패권주의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패권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언제고 '테러와의 전쟁'과 대량 파괴무기의 확산 방지를 구실로 선제 군사공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미국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테러지원국'과 대량파괴무기를 소지한 '불량국



가'가 되고 만다.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전략은 지난 2002년 9월 20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국가 안전보장 전략' 보고서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이러한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은 유엔헌장 위반이고, 유엔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미사일방어(MD)계획은 21세기 미국 세계패권전략의 핵심이다. ABM조약 파기와 MD계획의 추진은 미국이 절대적인 핵패권을 장악하고, 핵무기 선제공격능력을 독점적으로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적인 핵억지력안정을 깰 뿐만 아니라, 핵강대국들 간에 군비경쟁을 유발할 것이다. 이라크 침략의 직접적인 동기는 이라크의 석유 장악과 친미정권 수립이다.

이라크의 석유 매장량은 약 1,125억 배럴로 공식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세계 2위지만, 지난 80년대 이후 탐사가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세계 1위로 평가되고 있다. 유정이 지표면에서 가깝고, 항구가 가깝기 때문에 생산성은 세계 최고다.

'중동에서 민주주의의 확산'을 내세워 중동을 친 미국가들로 개편하려는 것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이유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탈미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또한 중동을 친미국가들로

개편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는 미국내 유대인들의 요구도 반영되었다. 부시행정부의 지지기반인 군수산업체와 석유자본의 이익이 배경에 있음은 물론이다.

21C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침략 목적은 보다 원대하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패권전략의 일환이다. 이라크의 유전 장악은 아프간 침공을 통해 이미 확보한 카스피해 유전지대와 더불어 미국의 21세기 패권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미국이 21세기에도 패권국가로 남기 위해서는 세계 에너지원을 장악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세계 에너지원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면 21세기에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잠재국으로 지목된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은 이번 이라크 침공에서 성공하고 또 자신이 의도한대로 소기의 목적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한 명분 없는 이번 침략전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미국의 지도력은 손상을 입고 세계패권전략도 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정당성 상실한 미국의 지도력

유엔에서 군사적 행동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좌절된 것도 매우 의미심장하다. 세계가 미국의 횡포와 독주에 더 이상 동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카메룬과 기니, 칠레 등과 같은 약소국들조차도 미국의 엄청난 협박과 회유에 굴복하지 않았다.

명분 없고 불법적인 이번 침략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은 그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은 큰 손상을 입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질서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동조하는 소수의 "친미국가군"과 이러한 미국의 패권주의정책에 반대하고 견제하려는 "비미국가군"으로 갈라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미국

의 패권주의는 스스로의 오만과 악수로 인해 전 세계적인 반발에 직면하고 쇠퇴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급격한 국제질서의 변화 예상돼

또한 유엔이 미국의 침략전쟁을 막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중심역할을 해 왔던 유엔도 그 위상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 국제연맹이 나치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일본의 만주 침공,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을 막지 못함에 따라 무력화되었듯이, 유엔을 무시한 미국의 행동은 유엔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새로운 희망도 보인다. 전세계에서 물결친 반전 움직임은 세계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 주었고, 평화에 대한 인류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확인시켜 주기에 충분했다. 세계 NGO들의 눈부신 활동과 세계시민사회의 성장은 평화를 갈망하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아프간에서는 9·11테러의 희생자 보다 더 많은 민간인들이 미국의 오폭으로 죽어갔다. 경제 제재조치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매달 6천 명씩 죽어간 이라크에서 또 얼마나 더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야 하나. 이 더러운 '미국을 위한 미국의 전쟁'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용병으로 보내서는 안된다.

